

사회

의사들 멀쩡한 무릎 알고도 수술

65억 챙긴 국내 최대 보험사기단 95명 검거

전남경찰, 순천 모 병원장 영장

경제적 곤란을 보충해 가입시킨 뒤 고의로 수술을 받게 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단 1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역대 보험 사기 중 최대 규모로 이뤄진 이번 사건은 현지 의사들의 알뜰한 상술이 범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1일 돈이 궁한 사람들에게 고의로 수술을 받게 한 뒤 보험금과 병원비 등을 받아 챙긴 노모(여·50)씨와 왕모(40)씨 등 2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불필요한 시술로 부당수익을 올린 순천 모 병원장 송모(57)씨를 사기 및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보험 사기에 연루된 95명을 입건했다. 송 원장과 함께 불필요한 시술을 한 의사 서모(30)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보험 사기 사건에는 노씨와 왕씨 등 브로커 4명을 비롯해 의사 2명, 보험설계사 7명, 보험가입자 82명 등이 연루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신용불량자 등 11명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 경기 김포지역 모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게 하고, 보험금의 20%와 병원비 등을 받는 수법으로 총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왕씨는 노씨로부터 보험 사기 수법을 전수받아 경제적 빈곤자 37명을 모집한 뒤 송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게 하고 총 26억원을 받은 혐의다. 왕씨는 “송 원장의 병원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대부분을 수술해준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송 원장은 시술이 필요없는 환자 60명에게 무릎 관절수술을 해주고 건강보험 요양 급여금을 청구해 3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서씨는 송 원장이 운영하는 순천의 또 다른 병원에서 환자 21명에게 무릎 수술을 해주고 8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왕씨의 제안으로 보



지난 31일 광주 서구 농성동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황석현 광역수사대장이 최근 5년간 6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신중 보험 사기단의 범행 수법과 수사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험에 가입한 정모(42)씨는 무려 13개의 보험에 가입해 총 2억1900만원을 탔다. 정씨 등 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거액의 사채 빚을 진 채무자들로 수술이나 입원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2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보험료를 왕씨 등이 대신 내주는 데다 비교적 간단한 무릎 수술만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건자 중 편취 금액이 많은 15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포와 인천 등 수도권 병원과 보험업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수경찰·게임장 유착 비리 여자 브로커 있었다

로비자금 2억2천만 40대 구속

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게임장 업주의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데 이어 브로커 개입 사실까지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이모(49)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구속된 김모(44)씨 등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경찰의 단속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억원 중 4000만원을 단독 부서 담당자인 여수경찰 이모(48)경위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경위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밀접한 관계가 알려졌다. 로비자금을 낸 업주가 많았다는 주변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

대하면서 최근 여수경찰 경찰관 1명을 추가 소환·조사를 했다.

또 다른 경찰관 1명도 관련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수경찰 게임장 유착 사건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여수경찰 신모(48)경사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35)경장은 게임장 업주들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2명에게 향음 제공과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모두 파면조치와 함께 입건됐다.

여수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유착 사건 연루자는 이미 사법처리된 3명과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1명 등 모두 4명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명은 의심만 받고 있을 뿐 아직 비리 연루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경찰서 주차장서 아내 흥기로 찢러 불륜문제로 말다툼

전주덕진경찰청은 지난 31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흥기로 아내를 찢른 임모(4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전주덕진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흥기로 아내(43)의 복부 등을 2차례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이날 아내의 불륜 문제로 상담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함께 왔다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취재본부=김은철기자 k0765@

“수술만 받으면 수천만원 생긴다” 유혹 신불자 등 82명 범죄 수령

순천 보험손해를 101%로

지난 31일 범행 전모가 드러난 신중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파렴치 범죄였다. 100여명이 가담한 사기행각은 해당 지역의 보험손해율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보험설계사들에게 고객용 선물을 팔던 노모(여·50·구속)씨로부터 발단이 됐다. 노씨는 2005년 8월 남편이 다리를 다쳐 김포 모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기발한 범행을 생각해냈다. 보험에 가입한 뒤 무릎 수술만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노씨는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브로커 왕모(40)씨와 함께 신용불량자와 사채 채무자 등 보험 가입 대상을 찾아 나섰다. 노씨 등은 이들에게 7~8개 보험에 집중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대납한 뒤, 고의로 무릎 수술을 시켜 5년여 동안 무려 37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환자의 의사만 있으면 시술을 해주는 일부 병원

의 악덕 상흔도 이들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급증하는 TV홍소풍의 보험 상품도 이들의 장기적인 범행을 도운 주된 통로가 됐다. 홍소풍의 경우 보험설계사 없이도 전화 한 통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돼 허위 계약 여부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씨 등은 무릎 수술 만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3만~5만원)를 최소화했다. 또 의심을 피하려고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뒤 수술을 받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기행각에 연루된 브로커와 보험가입자 95명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타낸 금액은 무려 67억원. 이들이 벌인 사기 행각의 파급효과는 범행 규모 만큼이나 컸다. 이들의 사기행각이 집중된 지난해 순천의 평균 보험손해율이 101.7%까지 치솟은 것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82.1%)보다 19.6%가 높은 것으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월에는 보험손해율이 60.3%로, 41.4%가 감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주유소 기름 정품 여부 점검 기름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 광주 서구 두암동 한 주유소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정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0명 입건...교수 5명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1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국 의대 4학년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전 집행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학과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개시,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이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후기 형식으로 올리도록 하는 수법으로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고사 112개 문항 가운데 103문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시험 실기고사는 시험실 12곳을 이동하면서 모의환자 진찰과 진료 기술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으로 나눠 매년 9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치러진다. ‘전사협’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이려고 10여 년 전부터 운영된 조직으로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 3300여명 가운데 27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꾸러진 집행부는 응시자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학교 대표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승인을 해주도록 하고 여러 차례 각 학교를 돌며 회의 등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남뉴스

“바가지 청자” 감정위원 배임 등 처벌 요구 원 소장자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강진군, 입장 밝혀

강진군은 지난 31일 ‘뒷돈’을 받고 강진청자박물관이 매입한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위원(광주)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날 “고문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고려청자) 원 소장자 이모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고,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위원 최모씨에 대해

서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그동안 이 같은 (감정가 부풀리기)의구심이 생겨 지난 2009년 10월 검찰에 (관련자들)배임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 강)는 지난 30일 이씨로부터 감정가를 후하게 매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해의 원정도박 신정환씨 사전영장 청구

○방송인 신정환(36)씨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상습도박 혐의로 신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신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1억 3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으며, 내팔 등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경찰이 체포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신씨가 걸었던 판돈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억 1050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여행 중에 텅기열에 걸렸었다는 신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남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1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경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률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검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1시간)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